







# 朝鮮洋樂의夢幻的來歷 2 咸寧殿上에 서리크 쓰의 遺響

「應人長」과 「夢金尺」을 대하는 國歌의 新曲  
電話筒으로 神遊聖娛하시든 高宗帝의 愛賞  
日公使을 남자 코멘트俄公使의 임바른 소리  
世界에 有數한 大樂班에 蹤進한 出藍的聲譽

## 陰曆七月二十五日

은 高宗皇帝의 萬壽聖節이라 두금석  
 달前부러 進宴都監이 암고 平壤·晉州·  
 大邱·官川·成川·色鄉이 한色鄉은 끌고  
 드나니며 八道의 名妓를 다 몰아들여 歌  
 舞를 練習하네 皇才를 하네 하야 서울장  
 안운 이 큰 장치로 우암에 가 째 들썩하  
 든 판이었다. 그려면 新設한지는 여출  
 안이 되지만 洋樂이 이 장치에 떠서어서  
 는 아니될 것 一二曲이라도 몰아서 가르  
 치느라니 別別層折이다만 험것이니 葡爲  
 先 농이 순樂器를 냄내 노크보니 露西亞  
 製는 獨逸樂器와 音調가 끌리어 맛지  
 를 안는다고 球國서울雜也納에 있는 청  
 베트남樂器會社에 다시 注文을 하야 노  
 코잇는樂器로 불야분야 가르쳐 기始  
 作하는데에 머리스위가 남작하면 슬  
 기롭지 못하다고 僵차내인다. 樂器를 조  
 금만 잘듯들어도 주역쟁이 葡萄를 날운다  
 하야 매에 뜯어기여 逃亡하는 백해 내쓰  
 는 빛에 한창 風波를 겪는 에 葡萄를 불  
 철하고

## 三취구멍에 소를 물듯

하야 가로치었다. 그리느라니 軍樂이 탄  
 士氣를 도웁기는妨捨하고 士卒들을 들  
 복는것이 아하야 恶聲이 藉藉하였다. 나  
 何如間 傑特히 萬壽聖節期日까지는 伊  
 태利歌曲中에서 第一節易한 것 一曲과  
 獨逸行進曲中에서 亦是一曲을 摆하야  
 두曲調를 能히吹奏하게 되었다. 구경도  
 못하든 西洋樂을 不過三個月에 배었다  
 는 것은 참정말 詮考을 한 일일뿐 아니  
 라事實이 새에 비롯으 朝鮮사람의 音樂  
 的天)가 있음을中外에 알리우게 되었  
 다 그는 何如間 기다리고 기다리를 萬  
 壽聖節날이 되었다. 이 새벽 죽을 힘을 다

들여 배운 재치를 이 華韓한 장치에 보  
 이 계된 軍樂隊로 말하면 그 때 시절로  
 서는 이에 더한 燕光이 업을 것은勿論이

서 華麗한 咸寧殿 앞에  
 朝鮮에서 차음듯는 西洋管樂 소리라  
 朝鮮—— 마구나當時五歲이 서 큰 모수의  
 兩朝——

王壯子 그제의 英親王兩只氏는 韓國常  
 하제 奈기에 그 후부터는 세曲調를 배  
 우면 依例히 大內에 들어가서 奏樂을 하  
 고 하로라도 闕하면서 甚至於 電話를 걸  
 어 노크 들으셨다 한다. 그리하야 그제  
 저울에는 國歌를 지어 作曲을 하였스니  
 그歌詞는 여러 문도 다 알겠지만 「上帝  
 是 우리 皇帝를 도으사 聖母無疆하사 海  
 屋簷을 山가리 쌔 旱시고 威權이 環瀛에  
 穩치사 於 千萬城에 福祿이 日新栽하소  
 사 上帝는 우리 皇帝를 도으 소사』 라한  
 것이요 曲調는 「에겔르」氏가 지었다.

印刷를 하야 가져다가 外國人에게 配付  
 를 하고 入港하는 外國船使을 利用하여  
 널리 世界에 宣傳을 하았다. 그리하야 이  
 功勞로 「에겔르」氏에게는 三等 太極勳  
 章을 주었스니 이것은 氏가 日本에서  
 五等 儉日章을 받았을 것을 四등이었다고 속  
 이 기재 문이었다. 그리고 樂卒에 對하여  
 는當時의 憲兵과 元帥府 兵丁과 가리本  
 儉白銅貨五元五十錢에 五十錢을 더 주  
 고 채 질적이어야 한다 하야 普通兵丁  
 보다는 儉待를 하았다.一般兵丁은 餉賄  
 二錢五厘로 所謂「蓬萊을 설령湯」한 그릇  
 이들이 한복 보라고 만하지 않으면 쥐코  
 備白銅貨五元五十錢에 五十錢을 더 주  
 고 채 질적이어야 한다 하야 普通兵丁  
 보다는 儉待를 하았다.一般兵丁은 餉賄  
 二錢五厘로 所謂「蓬萊을 설령湯」한 그릇  
 김치한 그릇이라는 쥐코 밤침이 普通이  
 었다. 그것도 餉官令監以下 여러 슈监  
 네들이 한복 보라고 만하지 않으면 쥐코  
 에 한구멍이 놓여서 적어도

備白銅貨五元五十錢에 五十錢을 더 주  
 고 채 질적이어야 한다 하야 普通兵丁  
 보다는 儉待를 하았다.一般兵丁은 餉賄  
 二錢五厘로 所謂「蓬萊을 설령湯」한 그릇  
 이들이 한복 보라고 만하지 않으면 쥐코  
 備白銅貨五元五十錢에 五十錢을 더 주  
 고 채 질적이어야 한다 하야 普通兵丁  
 보다는 儉待를 하였다.一般兵丁은 餉賄  
 二錢五厘로 所謂「蓬萊을 설령湯」한 그릇  
 김치한 그릇이라는 쥐코 밤침이 普通이  
 었다. 그것도 餉官令監以下 여러 슈监  
 이들이 한복 보라고 만하지 않으면 쥐코  
 에 한구멍이 놓여서 적어도

## 二御使방침은 되겠지

만 二錢五厘에서 三分之一이나 이 모  
 저모 갑가격기세문에 말할 수 있는 粗食  
 이었다. 그러나 樂卒은 內藏院秘庫에서  
 二十萬兩를 나리어 그 利息으로 賦賄에  
 쓰게하였다. 그러나 그中十萬兩은 「에  
 켈르」氏에게 넘어 왔으나 남여지 10  
 萬兩은當時內藏院卿이 든 朴鋪和가오  
 래두고 取利의 資本으로 挾雜을 하았다  
 는 것도 그 中의 한 捕話이었다. 그러나  
 이것으로 도不足하다 하야 「에겔르」氏는  
 軍部와 交渉을 하여 樂手獎賞金이라는  
 名義로 每月四十元式 支援하게 하야 月末  
 에 勸役에 쌍따서 賞錢을 分配하야  
 心으로 奬勵하였다. 이와가리 上下의 龍  
 려니와 그翌年에는 五十名을 增集하야 热  
 百名의 一中隊을 編成하게 되었다. 그 해  
 에 마침 蔡忠培을 建立하고 每年三·九月  
 中丁日에는 故祭을 하게 되었으므로 軍  
 樂隊는 吊曲을 배우어 忠魂을 燭勞하게  
 事上奏樂의 비롯이요 또한 民衆化한 第  
一步이었다. 그리고 軍樂隊長短에 맞  
 들어 錄만한다는 章譜가 생겨진 것도 資  
 以 었스니 이것이 軍樂隊創設以後 軍  
 樂隊는 演奏을 하게 되었다. 그리하야 軍樂隊가漸漸  
 늘을 足進步를 하게 되며 外國人의 慶歎은  
 말할 정도였거나, 어느 宮中宴會席

上에서 日本公使林權助가 韓國公使  
 厚路덕리 朝鮮人과 日本人을 比하면 西  
 이들의 푸른 공로이었다. 그러나 커다  
 어리先生들이 알았을 흥미가 업는지라  
 조자는 화랑에 大殿에 있는 어느 印刷所  
 이 韓國에서 「朝鮮의 奇觀은 農業 다음에  
 是軍樂이 바라졌다. 朝鮮의 軍樂隊는設  
 立되지 않으면 几年에 그學習한曲牌은  
 이 聖廟하니 「朝鮮의 奇觀은 農業 다음에  
 是軍樂이 바라졌다. 朝鮮의 軍樂隊는設  
 立되지 않으면 几年에 그學習한曲牌은  
 巴氏는 日本人과 比할 때 아니라

## 二朝鮮人은 東洋에 第一

이 되라고 言下에 邱答한 일이 있었단다.  
 그後英國 「리아쓰」紙記者某가 來  
 遊하였다가 軍樂隊의 演奏하는 것을 듣고  
 踏國한 後에 「朝鮮人은 特히 音樂上技能  
 이 聖廟하니 「朝鮮의 奇觀은 農業 다음에  
 是軍樂이 바라졌다. 朝鮮의 軍樂隊는設  
 立되지 않으면 几年에 그學習한曲牌은  
 치안호나 그奏法은 英國의 「베로리아」  
 管樂隊와 米國의 「수사」管樂隊에 比하  
 야 通色이 있다 고 「라임쓰」紙上에 揭  
 載하고 이記事는 그제 日本의 어느  
 巴國 거래 海關附屬病院으로 改築하고  
 光武七年 봄에 三軍部 據內에서 軍樂隊  
 를 移轉하였다. 元來 이 塔를公園이라  
 야 두었던 洋屋지을 軍樂隊로 改築하고  
 「公園」 거래 海關附屬病院으로 改築하고  
 雜誌에도 譯載되었다.  
 그다음에는 塔를公園으로 수의 「파고  
 달라고 塔이나 거울에다가 웃을하느니  
 고사를 지내느니 資을 賦賄에 하여 주었더니  
 꽃을 놓고 놓았을 때마다 周遭에 有百種式 기  
 舍하고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 
 어찌 한쪽으만 오막 살이 진 속에 있든 것  
 이다. 그리하야 아이를 뵐 사람은 사람을  
 나 나를 것 업시 모혀들에 거북코 八구  
 영에다가 살당배를 험쳤다. 대다가  
 와집을 지었다. 험쳤다. 대다가  
 세우고 神福를 한다. 절을 한다. 하야  
 人 속便한 千兩萬兩를 들은 그제 나 이 때  
 나 나를 것 업시 모혀들에 거북코 八구  
 영에다가 살당배를 험쳤다. 대다가  
 대다. 어려한 우승은 이익이 三百六十五  
 일은 두고 두고 이익이 하야도 입의 청이  
 局은 그 집主人의 祖일을 하야 주었더니  
 局은 그 집主人의 祖일을 하야 주었더니  
 收入中에서 그附近의 民家를 買入하야  
 거므로 옮겨온 위에 비롯으 公園한  
 設施를 한 것이었다. 그러나 公園이 라고  
 는 말뿐이요 街巷을 충직히 쌔고 四方  
 街을 짜았어 두엇스니 軍樂隊가 그  
 관에 純朝鮮式八角亭으로 音樂堂을 新  
 繕하였다.

## 朝鮮洋樂의夢幻的來歷——3

### 大弓子式이 듣 大音 演奏의異彩

도대체 윤관아 단아 계되었나. 이와 가증  
한일 인제는英親王瑪瑙의부르성도 엄  
스러니와 軍部와 日賀田氏가支撥하든  
樂平獎賞金조차 임시된다. 그러나  
명문동지는

대나 유품에 단아 계되었나. 이와 가증  
한일 痛感가고 國步가霉臭而極困한자라  
關내의 侍衛이漸漸드물어질것은分明  
한정 일제는 韓四年八月  
이라廿九日——日韓이 승전되며 五十  
人의一中隊中에서五人을減하야四十  
五人으로縮少한一隊을 李王職軍侍司  
에 移屬케하여 또 한四年을 그려서  
지내게되었으나 大正四年에는 아조解  
散을시키라하였다. 그러나 이때마음  
에 移屬케하여 또 한四年을 그려서

제하였다. 그러나 그翌年에는『에겔로』  
氏를解雇하고 小宮次官代로 國分象太  
郎氏가 李王職次官에 就任한以後로는  
欠員이잇서도 補缺처 안찾스니 이는 끊  
不攻이自滅의常習手段을取한것이었다.  
이가리 極度로衰退하는中에『에겔로』  
氏는 大正六年에 順町自宅에서猝然히  
逝去하야 楊花津에 安葬하였다. 그이듬해九月  
에『에겔로』氏를 謂호『에겔로』氏로 부리  
서在位時代에 內藏院秘庫로 부리下賜  
한例의 四千圓條을『에겔로』氏로 부리

洋人이나官吏에만公開하든木曜日演奏會  
『掌禮院』과『李王職』으로 넘어나는 그末路  
高皇帝의 賭天하신 후에殉葬의인最後解散  
二十年間의 歷史가感慨無量한國情의副本

——薄俸으로는 生計를  
할수잇는지라 한 사람두사람 호지  
는 뜻을되다.

대나 유품에 단아 계되었나. 이와 가증  
한일 痛感가고 國步가霉臭而極困한자라  
關내의 侍衛이漸漸드물어질것은分明  
한정 일제는 韓四年八月  
이라廿九日——日韓이 승전되며 五十  
人의一中隊中에서五人을減하야四十  
五人으로缩少한一隊을 李王職軍侍司  
에 移屬케하여 또 한四年을 그려서  
지내게되었으나 大正四年에는 아조解  
散을시키라하였다. 그러나 이때마음  
에 移屬케하여 또 한四年을 그려서

제하였다. 그러나 그翌年에는『에겔로』  
氏를解雇하고 小宮次官代로 國分象太  
郎氏가 李王職次官에 就任한以後로는  
欠員이잇서도 補缺처 안찾스니 이는 끊  
不攻이自滅의常習手段을取한것이었다.  
이가리 極度로衰退하는中에『에겔로』  
氏는 大正六年에 順町自宅에서猝然히  
逝去하야 楊花津에 安葬하였다. 그이듬해九月  
에『에겔로』氏를 謂호『에겔로』氏로 부리  
서在位時代에 內藏院秘庫로 부리下賜  
한例의 四千圓條을『에겔로』氏로 부리

—元來洋樂의輸入이—  
코즈兩班내들의功勞다.公園을연들어노  
노묘 樂隊를爲하야 八角亭을연들어노  
화스나 一般民衆의公私을爲하기는  
始捨하고 每年約二個月동안은 每週木  
曜日午後면 樂樂演奏會를開催하고 洋  
人이나間或各官廳官吏에게만公開하  
았다. 그는그러하고 해가방귀여相  
卓矣이解雇되어 彌國하고 日本人目  
賀田種太郎男이度支部顧問官이되어  
般軍人의俸給制度를改定하야 儲額을支  
撥하는판에 軍樂隊獎勵에도 매우用力  
하였느니 八千圓이라는 大金을投하야  
多種의樂器를亦是 維也納『천예르만』  
樂器會社에서購入하고 樂器에대해서 每  
朔百圓의獎賞金을 支撥하는同時에公  
園의周圍를 摆張한後 八角亭은 反響  
이甚하야  
—鄉音들이不良하다고—  
只今膝頭을연든의에다가 廿坪이나  
瓠子式(열반아지)으로 木製大音樂堂  
을세우고 公園을開放하야 演奏會를  
한 서울도련님내들의印에서 나오게된  
것이 所謂染病을알거든 假를堵을  
園열반아지로 菩提나라는 말버릇양전  
한 서예로 沈重하고 單薄을堵을  
하지안키세문 未久에頽落하야 形跡도  
엄서지고、只수잇는音樂堂은 龍山駐  
劄軍軍樂隊가解散된後 龍山公園에있  
든音樂堂을 움켜다가 노호것이다. 그  
리하야 그後에도 昨年까지 每年頽하  
지안코 演奏을繼続하야왔으나 수년만  
온事情에依하야 못하았다한다. 그러  
나이어못 皇室의恩寵과 官憲의庇護

—鄉音들이不良하다고—  
이 무수많이었는가. 朝鮮을 軍國主義  
에서解除(?)하는단이었다. 어려워  
말하면 朝鮮이 얼마나 세계潮流에서  
암서고 朝鮮의 幸福은 이로써 永世에  
保障되었다 하겠다. 그러나 아니나마  
나다. 이들은 濟死의朝鮮으로 하야  
隊의解散! 그것은 强×압制 선良民의  
護身具를 빼어서 간것과 다를 게없는것.  
아모리 朝鮮의軍隊가 紙冠木刀의兒戲  
방지되지안는다는 할지도 모르려 어서  
한境遇에있어서는 雜刀만은 할것이다.  
그리나 저러나 이 隆熙元年八月로써 朝  
鮮의軍隊 그最後의『페이지』를 마치엇  
다. 그리면當時銳氣凌厲한 半島男兒며  
悲愴慷慨의 繁國之士의 心事が 어찌하  
였을가는 이제 말할것 도얼거니와 何如  
問朝鮮의軍隊가解散되며

—軍隊에는軍樂이란—  
只今膝頭을연든의에다가 廿坪이나  
瓠子式(열반아지)으로 木製大音樂堂  
을세우고 公園을开放하야 演奏會를  
한 서울도련님내들의印에서 나오게된  
것이 所謂染病을알거든 假를堵을  
園열반아지로 菩提나라는 말버릇양전  
한 서예로 沈重하고 單薄을堵을  
하지안키세문 未久에頽落하야 形跡도  
엄서지고、只수잇는音樂堂은 龍山駐  
劄軍軍樂隊가解散된後 龍山公園에있  
든音樂堂을 움켜다가 노호것이다. 그  
리하야 그後에도 昨年까지 每年頽하  
지안코 演奏을繼續하야왔으나 수년만  
온事情에依하야 못하았다한다. 그러  
나이어못 皇室의恩寵과 官憲의庇護

부지다나나가 休職을하네 活動寫眞樂  
龍山駐劄軍軍樂隊가 解散되기때문에  
引繼하엿다가 樂隊員一同에게 頒給하  
고 三되어 樂隊를解散하였다니 解散  
當時는人員은 不過三十餘人이었다. 有  
爲轉變은人間의 免치 못할일이니라 할지  
나、案에倚하야 가만히 우리樂壇의過  
去二十年史를回顧한際 果然수昔의感  
이不無하다. 閔忠正의손으로 樂器를輸  
入한부분 決묘 然한事가 아니어든  
이로써 朝鮮人에게 音樂의天才가잇습  
을敎見한 이 洋樂隊가 수日에廢止되고  
四方에 허름하여 그形跡까지 숨어지라  
할을보고 누사서 同情의淚를禁할수잇  
스며 哀惜의情을抑制할수잇스리요. 또  
한 우리洋樂隊의 盛衰가 오로지 그內  
面의國情과并行학을생각함재 實로感

